

# 어쩌다이웃@두동

Eojeoda Neighbor@Du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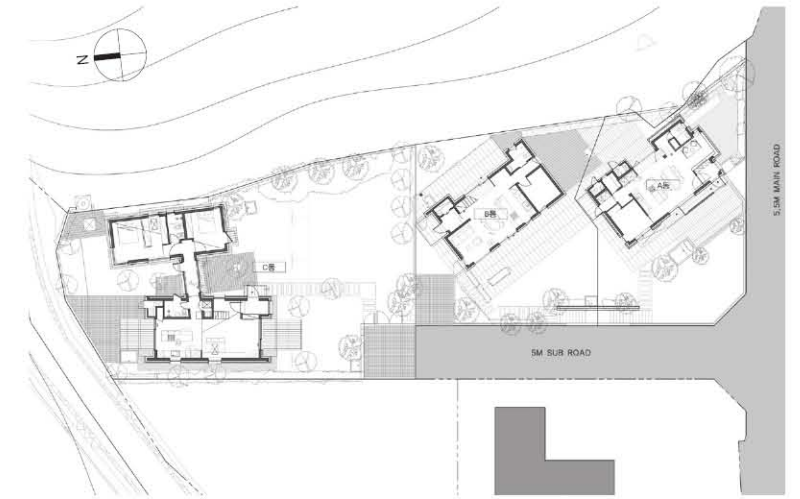
설계자 \_ Architect, 김성준 \_ Kim, Sungjun  
(주)건축사사무소 위(WEE) \_ Architects Office W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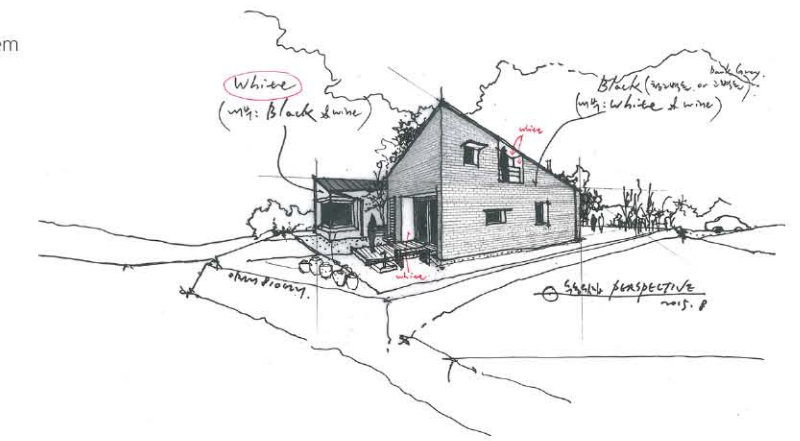
건축주 | A동 \_ 조자영 / B동 \_ 이리나 / C동 \_ 노상득  
감리자 | 김성준 \_ (주)건축사사무소 위  
시공사 | 이주형 \_ (주)아이엔건설  
설계팀 | 김휘원, 전행아, 강은엽, 송주연, 주정영, 채우리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이천천변길  
주요용도 | A동 \_ 단독주택+근생 / B동 \_ 단독주택 / C동 \_ 단독주택  
대지면적 | A동 \_ 305.00㎡ / B동 \_ 305.00㎡ / C동 \_ 586.00㎡  
건축면적 | A동 \_ 60.96㎡ / B동 \_ 60.93㎡ / C동 \_ 109.81㎡  
연면적 | A동 \_ 210.29㎡ / B동 \_ 121.86㎡ / C동 \_ 99.81㎡  
건폐율 | A동 \_ 19.99% / B동 \_ 19.98% / C동 \_ 18.74%  
용적률 | A동 \_ 39.76% / B동 \_ 39.95% / C동 \_ 17.03%  
규모 | A동 \_ 지하 1층, 지상 2층 / B동 \_ 지상 2층 / C동 \_ 지상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재 | 청고벽돌, 외단열시스템  
내부마감재 | 친환경 페인트(티쿠릴라)  
설계기간 | 2015. 07 ~ 2016. 01  
공사기간 | 2016. 01 ~ 2016. 07  
사진 | 김휘원, 김성준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은구조

Client | A \_ Cho, Jayoung / B \_ Lee, Rina / C \_ Noh Sangdeuk  
Supervisor | Kim, Sungjun \_ Architects Office WEE  
Construction | Lee, Juhyeong \_ IN Construction  
Project team | Kim, Hwiwon / Jeon, Haenga / Kang Eunyeop /  
Song, Juyeon / Ju, Jeongyeong / Chae, Uri

Location | Ijeoncheonbyeon-gil, Dudong-myeon, Ulju-gun, Ulsan-si, Korea  
Program | A \_ House + Studio / B \_ House / C \_ House  
Site area | A \_ 305.00㎡ / B \_ 305.00㎡ / C \_ 586.00㎡  
Building area | A \_ 60.96㎡ / B \_ 60.93㎡ / C \_ 109.81㎡  
Gross floor area | A \_ 210.29㎡ / B \_ 121.86㎡ / C \_ 99.81㎡  
Building to land ratio | A \_ 19.99% / B \_ 19.98% / C \_ 18.74%  
Floor area ratio | A \_ 39.76% / B \_ 39.95% / C \_ 17.03%  
Building scope | A \_ B1F-2F / B \_ 2F / C \_ 1F  
Structure | RC  
Exterior finishing | Embellishment brick, External insulation system  
Interior finishing | Eco-friendly paint(Tikkurila)  
Design period | 2015. 07 ~ 2016. 01  
Construction period | 2016. 01 ~ 2016. 07  
Photograph | Kim, Hwiwon / Kim, Sungjun  
Structural engineer | Eun structure



배치도







## 자연과 일상을 조우하며 스며들다.

### '좋은 집'이란 무엇일까?

그 집에서 살아갈 이들이 수십 년 동안 머릿속에 조금씩 파편처럼 그려오던 꿈을 하나의 강력한 물리적 실체로 눈앞에 펼쳐주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만나 따뜻한 미소로 이후에 쌓인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이를 위해서 건축가의 욕망을 누르고 건축주의 바람을 물리적으로 현존하게 하고, 그 물리적 실체 사이를 사는 이들이 시간의 때가 묻은 삶의 궤적들로 채워나가는 집이 '내'가 믿고 욕망하는 '좋은 집'이다. 건축가의 이러한 욕심을 담아내기 위해 건축주 가족의 소망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조응하며 소소한 일상과 풍경, 햇살을 담고자 하였다. 겉에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도 느슨하게 자연과 하나 되어진 풍경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렇게 배치에 대한, 공간의 쓰임새에 대한, 형태와 재료에 대한 그리고 창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었다.

현재 적잖은 사람들이 하루 머무를 '거처'를 고민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거처'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주거'를 얘기하는 것이 사치일 수도 있겠다.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모여 김장을 하며 삶을 나누는 일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처럼 현관문을 꼭꼭 잠그고 사는 현대의 삶과는 머

나면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사회에서 '가치있는 삶'이라는 관점을 견지한 '주거'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즉, '교환가치'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사용가치'로서의 '주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최근 유연한 관계성과 작은 공유에 대한 건축지향점을 담은 "어쩌다이웃"을 완공하였으며, 그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주거에서의 건강한 삶의 가치를 실험해 보고 있다. 현재는 그 인접대지에 '아홉 번째 이웃'의 집을 설계 중이다. "어쩌다이웃"은 지극히 사적인 주거공간을 최소 혹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마당, 풍경, 사랑방, 관계 등'을 공유하며 '대지경계선'에 한정된 '물리적 울타리'가 아니라 '이웃'이라는 '비가시적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건축주들의 변화된 주거의 욕구와 건축가의 작은 건축적 노력을 통해 이웃 간 단절되어져 가는 현대 사회에 새로운 주거문화의 단초를 던져보고자 하였다.

1. A동 전경
2. B동 전경
3. C동 전경
4. A동 K+D+L
5. A동 지하 스튜디오 외부계단
6. B동 2층 아이방
7. C동 LDK+다락
8. C동 다락계단







4

영어설명



54 Works



5

6



7



8

55